

名前:

지금 우리들은, 흔히 말하는 정보의
 바다에서 살고 있다. 그 정보 중에서도
 인터넷과 영상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
 높아지는 데에 비해, 신문이나 잡지
 , 책 등은 점점 우리의 생활 속에서
 사라져 가고 있다. 특히 젊은 층일수록
 그러한 현상은 심하다.
 그도 그럴 것이, 신문이나 잡지 등에
 비해 인터넷은 훨씬 쉽게 정보를 접하
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일찍이 구
 입해야 하는 누고도 없이, 한 번의 클릭
 몇 줄로 수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. 또
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시간·공간
 상의 제약도 될 것 없다. 게다가 어느
 때든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
 장점도 있다.
 이러한 점들 때문에, 그에 대항할 길
 을 찾지 못한 신문·잡지 산업 등은
 힘을 잃어가고 있다. 비록 아직 인터넷
 에 익숙치 않은 장노년층에게는 신문·

잡지는 읽는 편이 더 편하다고는 하나,
 그 역시 좀더 시간이 지나 지구의 질
 은 종이 사리의 주력이 될 즈음에는
 사라질 수요대다.
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라
 하더라도, 먼 훗날 신문·잡지 등은 웹
 상의 매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 물론
 인터넷에 비해 신문 등이 가지고
 있는 장점 - 충분히 시간을 들여 완성된
 전문성, 높은 퀄리티의 정보 등 - 은 사
 라지지 않을 것이다. 단지 그 콘텐츠가
 어떤 형태로 독자에게 보여질 것인가가
 문제다. 지금과 같은 지면상이 아니라,
 컴퓨터나 휴대용 기기 등의 모니터를
 통해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.
 실제로, 많은 신문사 잡지사들이 웹진
 형태로 옮겨가거나 그러한 서비스에 힘
 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이러한
 흐름이 100% 완료되는 것이 언제일지
 정확히 알 수 없으나, 언젠가는 오고

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.